

노마드적 관점에서 본 전통 정자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 안동하회마을 내의 정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tential for Korean Traditional Pavil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mad

- Focused on Korean Traditional Pavilion in Andong Hahoe Folk Village -

Author 조정화 Jo, Jung hwa / 정희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석사과정
김개천 Kim, Kai chun / 정희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erception of lives and studies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the concept of its sculptures can be reflected in Korean traditional pavilion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Nomadism as a western philosophy of this era. Nomadism literally refers to way of life of peoples who do not live continually in the same place but move cyclically searching for temporary centres whose stability depends on the availability of food and water supply or pastures for their livestock. In recent years, the term encompasses three general types: job nomads, digital nomads and ubi-nomads, which represent distinct features of modern society. Its concept implies looking for the new creative possibility through the liberation of desire and the breakaway to another thinking through continuous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Likewise, Korean traditional pavilion is the architecture to take a quick rest while walking in the mountains. This open place thus connects surroundings with people who are allowed to assimilate with nature as well as train their mind by following the law of nature, in order to finally reach the celestial state of mind. Knowing how to see, enjoy and appreciate the arts very close to nature, our ancestors were able to learn aesthetic activities. After recognizing Korean traditional pavilion as the potential place of unification of heaven and men which is Korean scholar's lifestyle and outlook on the world, this study accordingly will identify the value and mean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ccording to Nomadism in the occidental point of view.

Keywords 들뢰즈, 노마디즘, 한국전통정자, 평면
Deleuze, Nomadism, Korean Traditional Pavilion, Pl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생활과 학문에 관한 인식과 조영물(造營物)에 표현된 개념을 노마디즘(Nomadism)이라는 현대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전통 정자의 평면구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들뢰즈¹⁾와 가타리²⁾의 노마디즘은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창조적 행위를 뜻한다. 이 행위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 관용의 태도를 나타내는 가치체계로 '미래는 국경도 없고, 영토도 없을 것이며, 점점 분권화 될 것이고, 권력은 개인에게로 행하게

되고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아는 노마드(유목민)처럼 움직이는 사회로 변할 것³⁾이라고 하였다. 유목민은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창조하는 자들의 자유로운 사유를 말한다.

한국의 전통정자는 산수 간에 이동하며 잠시 머무르는 기능을 가진 건축물로 정자의 공간은 개방되어 인간과

* 이 논문은 2010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 논문이며, 또한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5001)

1) 질 들뢰즈(Gilles Deleuze:1925~1995) : 프랑스 파리 출생. 실존주의를 비판하고 해결적 마르크스주의와 구조주의에 도전했다. 그의 저서는 「베르그송 주의」,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가 있으며 가타리와의 공저로는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천개의 고원」 등이 있다.

2)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 : 의학과 철학을 수학. 1696년 들뢰즈를 만난 이후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종합을 시도하였고, 주요 저서는 「정신 분석학과 횡단성」, 「분자의 혁명」 등이 있다. 21C를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로 규정한 뒤 미래의 삶이 점점 유목민의 체제로 회귀한다고 말하였다.

3) 군돌라 앵리슈, 잡노마드 사회, 서울:문예출판사, 2002, p.9

환경을 매개한다.⁴⁾ 일반적으로 정자는 자연을 배경으로 좋은 곳을 찾아 풍광을 즐기며 휴식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지만, 정자는 목적과 용도, 사용자가 정해진 전통 건축의 주거공간(사랑채, 안채, 부엌 등)과 달리 독립적,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민들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유로운 공간의 사례로 적합하다고 고려되어 전통건축 중 정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형철,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즘과 동양적 사유의 방식(2003), 생태중심의 윤리: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적 사유(2002)」 등의 인문연구를 바탕으로 노마드적 관점에서 본 전통정자의 평면구성 특징을 통해 노마디즘이라는 서양의 현대 철학사유와 한국 전통건축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디지털 건축이나 현대 건축에서 주로 다루지고 있는 서양의 현대철학인 들뢰즈의 개념을 한국 전통정자와 연결시켜 노마드적 관점에서 정자의 평면구성 특징을 밝힘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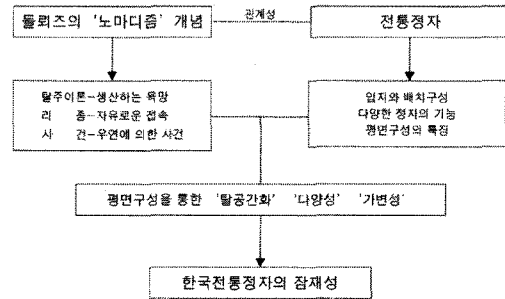


본 연구의 범위는 들뢰즈의 노마디즘 개념이 나타나는 「탈주이론, 리즘, 사건」 개념⁵⁾을 다룬다. 그리고 연구대상 정자는 하회마을 내의 정자로 큰 범주 안에서 고려해 볼 때 고택들이 밀집된 마을 안에 배치된 가내형(家內形)정자이지만, 낙동강 줄기가 마을을 싸고돌면서 'S'자형 형국을 이루는 지역적 특징⁶⁾으로 인해 가내형(家內形)이면서 강계연변형(江溪沿邊形)라는 배치의 특이성을 가진 정자가 존재한다. 코드화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탈코드화된 정자공간의 배치를 자연과 주거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노마드적 특성이 반영된 정자의 평면구성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로 선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옛 선인들의 정자를 연구함에 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 반촌이며, 보존마을로 지정되어 관리가 잘되어 있고, 형국의 특이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재청, 韓國의 전통가옥, 33:安東河回마을 1, 2009]이라는 문헌을 근거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豊川面) 하회리(河回里)에 있는 민속마을 내에 위치한 정사(精舍)⁷⁾내 4가지 정자(亭子)를 선정한다.

- 4) 강정운·김진균, 정자건축 瀟灑亭의 공간적 특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권 1호, 2006, p.261
 5) 탈주이론+리즘+사건은 욕망의 선의 배치를 통한 탈주이론의 구성 율리즘적 구조로 보며 다양한 접속이 가능한 유연성에 의한 사건의 생성을 노마디즘 사유가 발생하는 세계로 보고 노마디즘적 개념의 범위를 한정한다.
 6) 임제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하회마을 민속의 문화적 가치, 한국국학진흥원, 2008, p.4
 7) 1. 학문을 가르치기 위하여 마련한 집, 2. 정신을 수양하는 곳.

<표 1> 연구대상 정자 목록

번호	명칭	배치구성	위치
1	원지정(遠志亭)	가내형(家內形)	북촌권
2	빈연정(賓淵亭)	가내형(家內形)	
3	옥연정(玉淵亭)	가내형(家內形)-강계연변형(江溪沿邊形)	부용대권
4	경암정(鏡巖亭)	가내형(家內形)-강계연변형(江溪沿邊形)	



<그림 2> 연구진행과정

2. 노마디즘과 전통정자의 개념

2.1. 노마디즘의 개념

노마디즘의 노마드(nomad)는 '유목민', '유랑자'를 뜻하는 용어로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불모지를 새로운 생성의 땅으로 바꿔 가는 것, 끝 한 자리에 앉아서도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창조적인 행위를 뜻한다. 현대사회에서의 노마디즘 개념은 <표 2>와 같이 변용되어⁸⁾ 새롭게 사용된다.

<표 2> 변용되어 사용되는 노마디즘의 개념

현대의 노마드	의미
잡 노마드 (Job-Nomad) ⁹⁾	현대사회에서 미래의 직업인들은 사무실을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아이디어는 머리에 저장해 두며, 가벼운 가방을 들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인 노동세계를 마음껏 활보하는 사람
디지털 노마드 (Digital-Nomad)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가지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21세기형 신인류
유비노마드 (Ub-Nomad) ¹⁰⁾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인간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드적 사유는 욕망의 해방을 통해 삶의 창조적인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지속적인 생성과 변형을 통해 또 다른 사유를 찾아 이탈을 지향한다.

2.2. 노마드적 사유의 표현방식

(1) 탈주의 이론

들뢰즈는 노마드적 개념을 선의 배치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는 선(li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회 속

- 8) Gilles Deleuze / Felix Guattari, Brain massumi(Trans), A Thousand Plateaus :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천개의 고원 :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새물결, 2001, p.784
 9) 군돌라 앵리슈, 잡노마드 사회, 서울:문예출판사, 2002, p.9
 10) 두산동아대백과사전, 2001

에서 존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선분화된 선들의 배치로 정의한다. 이러한 선들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욕망의 배치를 구성하여 서로 관계 작용한다.

<표 3> 사회 속 선의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¹¹⁾

선의 유형	의 미
경직된 물질 ¹²⁾ 선분성의 선	- 시작과 끝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명확한 선 - 극히 계산 가능한 생활 - 전체와 동일화하는 제한된 선
유연한 분자적 선분성	- 경직선을 벗어난 유연한 분자적 선분성 - 새로운 선분을 만들면서 자기 사유의 선을 그리는 것 - 서로 얽힌 코드와 영토성의 상태
탈주의 선	- 탈코드화, 탈영토화에 의한 정의 - 선분적 선을 그리는 탈영토화된 흐름의 특이성을 갖는 선 - 물적인 것과 분자적인 것과 구별하여 양자 ¹³⁾ 적인 것 - 삶의 관성이나 타성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삶

사회적 생산에 따른 욕망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코드화(encoding)와 영토화(territorialization)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코드란 정보전달 과정에서 그것을 변환하고 해독하는 규약 혹은 규칙을 말한다. 코드화는 욕망의 흐름들을 통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방법이며, '탈코드화'는 욕망하는 생산을 끊임없이 코드를 벗어나 분열적 흐름을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접속, 새로운 환경을 향해 이동하려고 한다. 탈영토화 운동은 고정된 질서로부터의 범람하는 욕망의 생산적 활동을 영토로부터 탈주시켜 새로운 사유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마드들의 삶의 방식이다.

(2) 리즘적 사고

들뢰즈는 욕망이론, 탈주의 선, 사건개념에 의한 다양성과 이질성의 흐름을 리즘적 구조로 제안한다. 리즘이란, '근경(根莖)', 즉 우리말로 뿌리줄기로 번역되는 줄기가 곧 뿌리인 식물을 칭하는 식물학적 용어이다. 리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접속'이다. 리즘은 접속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개체를 다시 하나의 줄기로 형성하여 전혀 다른 개체가 되어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변화 한다.

<표 4> 리즘의 접속방식¹⁴⁾

분류	접속 방식	접속	이접	통접
20C 언어		and(A+B)	or (A,B)	and + C(A+B+C)
형식		-와	이것 또는 저것	그리하여
방식		A와 B의 만남	A 또는 B의 선택	A와 B 그리고 C의 통합

이접과 통접은 관련된 항들을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접속은 두 항이 등가적으로 만나서 제3의 것, 새로운 무언가를 생성한다. 여기에는 어

11) 이진경,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02, p.608
 12) '물질': '분자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통계적 평균에 의해 표시되는 것과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가정되는 분자들의 거대한 집합체를 '몰(mole)'라고 함.
 13) '양자적인 것': 미시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
 14) 위의 책, pp.91-93

떠한 귀결점도 없다.

(3) 사건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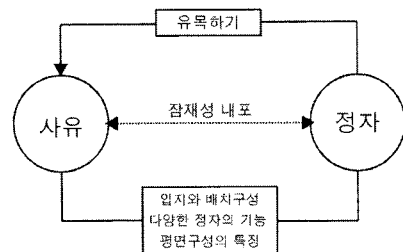
우연한 접속을 통해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우주의 모든 사건 또는 자기 동일성이 없는 복제를 가리키는 철학개념이 바로 '사건'이다. 우연적이고 창조적인 접속이 가능한 들뢰즈의 사건개념은 앞서 말한 리즘을 통해 사건의 생성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사건은 시물라크르,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말이다. 순간적인 것, 지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 자기 동일성이 없는 것이다.¹⁵⁾ 들뢰즈는 사물과 현상의 진리가 불변(성)의 것이 아닌 무수한 사건들에 의해 '되어가는 과정-되기'의 가변(성)에 있다고 한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행위는 그 행위의 의미가 지속되는 순간이 매우 일시적이지만 강한 생명력을 갖는 새로운 공간의 가치와 의미들을 전달한다.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공간창출을 통해 또 다른 잠재적 공간¹⁶⁾이 생성되어진다.

<표 5> 들뢰즈의 노마드적 사고개념과 공간적 해석

	들뢰즈의 노마드적 사고개념	공간적 해석
탈주이론	-선을 통한 사회속 다양한 욕망배치 -생산하는 욕망의 조절방식: 탈코드화, 탈영토화 -영토로부터 탈주시켜 새로운 사유 생성	탈공간화
리즘적 사고	-리즘: 뿌리없는 식물의 구조 -내재성을 통한 자기 동일성 탈피 -끊임없는 탈영토화의 구조	다양성
사건	-우연적, 창조적 접속 -순간적, 지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 -자기동일성이 없는 것	가변성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마드적 사유는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구조와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이룬다.

2.3. 전통정자 공간의 이해



<그림 3> 유목적 사유와 정자의 관계성

정자는 현존하는 전통건축물 중에서 최소규모 단위의 건물이지만, 자연합일(自然合一)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건축이다.¹⁷⁾ 정자는

15)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p.66
 16) 잠재적 공간(잠재성): 들뢰즈는 창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란, 바로 잠재성이라고 말한다. 잠재성을 통해 자유를 누리고 자유로운 창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17) 홍익대학교 환경개발 연구원, 정자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연구소, 1993, p.33

선비들의 학문이 추상적 체계로서 구현된 삶의 장소로서 자연의 예술적 기교가 무색한 천리(天理)를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자의 입지선정

조선시대 정자의 입지선정은 산수(山水)를 배경으로 조성된다. 또 향시 정자는 손님과 접대, 시(時)나 악(樂), 바둑이나 장기 등이 이루어졌으며, 정치와 사회이념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¹⁸⁾ 정자의 입지는 구체적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건축은 남향을 하고 있는데 정자의 입지에 따른 배치는 방위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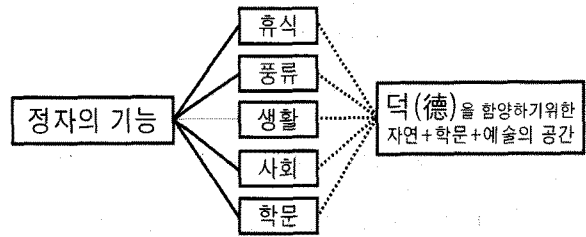
<표 6> 정자의 입지에 따른 배치 형태와 종류

배치 형태	강계연변형 (江溪沿邊形)	산정형 (山頂形)	가내형 (家內形)	지변형 (池邊形)
특징	강이나 계곡에 있는 정자	산마루나 언덕에 세운 정자	집안에 세우는 정자	세운 정자
그림				

(2) 정자의 기능

우리나라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의 '삶'은 집을 통한 주거 뿐만 아니라 학문을 통한 자기 수양을 위한 인격함양을 자연의 원리인 천(天)의 경지에 두었다. 따라서 자연의 적극적 수양의 공간으로써 정자가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정자는 자연을 더욱 가까이 곁에 두고 보고, 즐기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풍류²⁰⁾, 놀이라는 미적인 행위를 통해 체득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정자라는 조영물은 학문의 철학적 탐구의 장(場)인 동시에 미학적 조영물이라고 해석된다.²¹⁾ 선비들의 사색(思索)²²⁾과 신의(信義)²³⁾를 중요시하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지 배우기만 하는 '학(學)' 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깊은 '사색(思索)'과 '체득(體得)'을 통해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선비들의 학문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견해는 정자라는 공간을 통한 학문의 방법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⁴⁾ 정자는 때로는 종교적인 곳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기능도 하고 풍류를 즐기며 휴식도 취하는 다목적성을 가진 공간으로써 선비들의 미덕을 쌓는 학문(學文)과 덕치(德治)의 공

간으로 자연과 천하를 함께 하는 이상향과도 같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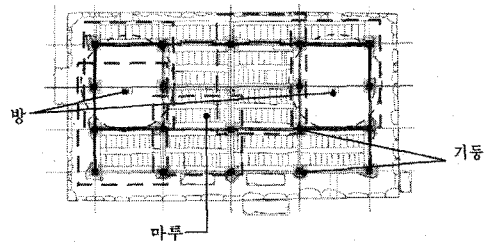


<그림 4> 정자의 다목적성

3. 노마디즘과 전통정자의 평면구성

3.1. 노마드적 정자의 평면구성 및 특징

정자는 외부의 독립공간으로서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한옥의 일반적인 평면 형태인 간(間)의 형식에서부터 정(丁)자형이나 아(亞)자형의 평면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인 형식인 정면 1칸, 측면 1칸의 형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평면구조에는 텃간이라는 형식으로 사면을 장식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정자는 외부공간을 안과 밖이라는 구분을 벽이라는 막힘을 배제한 공간처리를 하고 있다.²⁵⁾ 정자의 평면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써 간(間)²⁶⁾, 기둥, 마루로 정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그림 5> 정자의 평면 구성요소 및 기둥에 따른 공간 분할

(출처 : 문화재청, 韓國의 전통가옥, 33 : 安東河回마을 1, 2009, p.158)

(1) 간(間)의 확장과 연결(개/폐성)을 통한 탈공간화

정자의 간(間)은 바닥, 벽, 천장으로 이루어진 빈 공간으로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손쉽게 제거 할 수 있는 미서기문과 들어열개 문 등을 이용하여 공간 내외부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환경으로 부터 이동과 자유로운 접속이 가능한 공간이다. 따라서 정자는 공간용도의 변환이 손쉽게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간(間)을 통한 공간의 연결은 폐쇄성으로부터 개방되어지고 개방성으로부터 다시 폐쇄되어지는 무(無)의 영역으로부터 유(有)의 영역으로, 다시 유(有)

18) 김상협·최경란, 조선시대 수변정자건축의 자연추구기법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권 5호, 2010, p.250

19) 박연곤, 한국의 정자, 대원사, 1997, p.79

20) 풍류(風流) : 세속적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순수함에 잠겨보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풍류

21) 김개천, 孟子의 性善과 天合一 思想,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29호, 2010. 02, pp.102-104

22) 사색(思索) : 학(學)에 대한 사(思)의 강조

23) 신의(信義) : 새롭고 창조적인 견해

24) 문희춘, 병산서원의 만대루에 보여지는 시각체계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론, 1998,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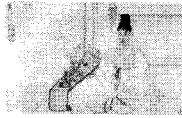
25) 박연곤, 한국의 정자, 대원사, 1997, p.82

26) 간(間) : 간은 사각형의 6자(尺)의 1.8181m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의 공간적 측면에서 바닥, 벽, 천정으로 이루어진 속이 빈 입체(방)형으로 본다.

의 영역으로부터 무(無)의 영역으로 관계되어진다.²⁷⁾



<그림 6>
無:자연 속 공간



<그림 7>
有:김홍도 「사인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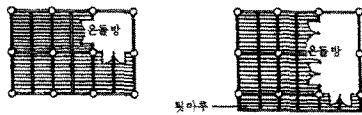
정자의 간(間)의 역할은 간(間)의 개/폐성을 통해 무(無)의 공간인 자연속 공간도 되고 유(有)의 공간인 선비의 학문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출처 : 정병호,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간(間)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정자의 공간은 열림과 닫힘으로 인해서 공간의 확장과 연결이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자유로운 이탈을 통해 자연 속 공간이 된다.

(2) 마루의 완충을 통한 다양성

정자의 마루는 노마디즘의 리즘적 특징 중 새로운 것의 생성적 측면에서 볼 때, 정자공간에서 마루라는 새로운 공간의 생성을 통해 더 풍요로운 공간이 구성된다. 마루공간은 인접하고 있는 공간(방)과 일체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것과의 결합을 통한 것이며, 빗마루의 경우 외부공간을 거쳐 대청마루에 이르는 중간 공간으로 또다른 새로운 공간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마루공간은 정자로 가기위한 매개적 역할과 완충공간으로서 공간의 확대, 축소를 통해 자연과의 적극적인 동화라는 정자 건축계획 기법의 연출에 일조하는 것이다.²⁸⁾



<그림 8> 마루를 통한 완충공간

(출처 : 이갑규, 조선시대 정자건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1992, p.42)

(3) 기둥의 자유로운 분할을 통한 가변성

기둥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공간을 분할하여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과 서로 작용한다. 기둥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공간이 창조되며, 기둥은 목적에 따라 분절되고, 또한 공간을 분할하는 투명한 벽을 형성하게 되어 공간속에서 이동하는 우리는 새로운 공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가변성을 지닌다.²⁹⁾ 정자의 경우 비어있는 공간 속에 기둥만의 존재로 공간 막이 형성되어 행위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고 내 외부 공간과 주변사이에 우연적인 다양한 사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그림 5 참고>

틀리츠의 노마드적 공간특성과 노마드적 정자의 평면구성 특징을 비교해보면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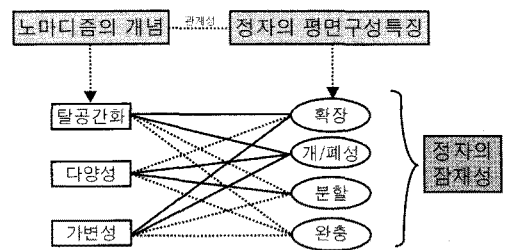
27) 신동관, 간(間)개념에 의한 亭子建築의 연구, 건국대석론, 2003, pp. 26-27
28) 홍익대학교 환경개발 연구원, 정자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연구소, 1993, p.37
29) 신동관, 간(間)개념에 의한 亭子建築의 연구, 건국대석론, 2003, p.38

<표 7> 틀리츠의 노마드적 공간특성과 정자의 평면구성요소

	노마드적 특성	공간적 해석	정자의 평면구성요소	정자의 평면구성요소특징
탈주 이론	-새로운 접속,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 -고정된 질서로부터 범람 -자율적 참여와 소통의 체계	탈공간화	간(間)	확장 연결(개/폐성)
리즘적 사고	-다원화된 사회구성원 -탈중심화된 사회구조 -이질적인형태와의결합	다양성	마루	완충
사건	-순간적인 사건 -자율화된 형태 -이벤트적 프로그램	가변성	기둥	분할

3.2. 노마드적 정자의 평면구성 특징 도출

전통 정자의 평면구성에서 도출해낸 확장, 개방/폐쇄, 분할, 완충 등의 특징들은 복합적으로 노마디즘의 개념들과 관계를 맺어 직·간접적으로 전통 정자의 평면구성에서 노마드적 특징들을 드러낸다.



<그림 9> 노마드적 정자의 평면구성특징 관계

4. 노마드적 정자의 평면구성 특징 분석

본 연구의 2장은 노마디즘과 정자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공간적 해석을 하였으며, 3장은 노마디즘과 정자의 평면구성 특징들을 도출을 하였다. 그리하여 노마드적 정자의 다양한 잠재된 특성들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하회마을을 내에 위치한 4개의 정자를 [문화재청, 韓國의 전통가옥, 33:安東河回마을 1, 2009]이라는 자료를 통해 참고, 분석하고자 한다.

<표 8> 노마드적 정자의 특징 표시방법

평면구성 특징	직접적 도입(◎), 간접적 도입(○)
노마드적 특성	탈공간화(A), 다양성(B), 가변성(C)

(1) 차별성을 통한 진화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마을 남서북쪽을 'S'자형으로 휘감아 돌면서 흘러간다고 해서 '하회(河回)'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특이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마을내에 있는 정자(精舍)에 위치한 4개의 정자는 가내형(家內形)이면서 강계연변형(江溪沿邊形)이라는 특이성을 지닌다. 그 특징들이 자연과 혹은 주거와 어떻게 융합되어 노마드적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표 9> 입지를 통한 노마드적 정자 분석표30)

원지정 (遠志亭)	가내형(家內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회마을의 북촌권에 속하는 입지조건 빈연정사와 남북으로 일직선 속에 자리 잡음 북촌대와 인접하여 확장을 통한 주거와 관계성을 가짐 			
평면구성 특징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노마드적 특성	◎	◎	-	-	◎
노마드적 특성	A	B, C	-	-	B
빈연정 (賓淵亭)	가내형(家內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로는 북측, 북향을 바라봄 → 부용대를 지향(自然畝-) 원지정과 달리 주거공간과는 거리가 있어 선비들의 학문수양 혹은 기거를 위한 자율적 공간 			
평면구성 특징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노마드적 특성	◎	◎	-	-	◎
노마드적 특성	A	B, C	-	-	B
옥연정 (玉淵亭)	가내형(家內形) - 강계연변형(江溪沿邊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천을 중심으로 하회마을과 마주하고 있는 부용대의 남쪽에 위치 하회마을의 고택들과는 거리가 멀고 주변의 화천서원이 위치한 것으로 보아, 학문수양을 위한 곳으로 보임 주변공간의 특징을 보아 정자의 확장성과 개방성이 나타나며, 강을 통한 탈공간화와 다양한 공간개발이 가능 			
평면구성 특징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노마드적 특성	◎	◎	-	-	◎
노마드적 특성	A	B	-	-	A, C
경암정 (鏡巖亭)	가내형(家內形) - 강계연변형(江溪沿邊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회마을의 낙동강이 돌아흐르는 건너편 소나무 숲속의 강을 조망하는 위치에 건립 살림채가 배면에 위치하여 주거공간과의 관계성이 있음 주변 소나무의 울창한 환경으로 인해 정자를 은폐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평면구성 특징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노마드적 특성	◎	◎	◎	-	◎
노마드적 특성	A	A, B	-	-	A, C

조선시대 생활상이 반영된 마을의 정자를 분석한 결과 가내형(家內形)정자는 북촌과 인접하고 주거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강계연변형(江溪沿邊形)정자는 형국의 특이성으로 부용대에 위치하여 선비들이 숙세를 벗어나 자기수양을 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자기만의 사유를 위해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민들과 같이 정자의 공간은 선비들이 주거공간과는 달리 차별화된 공간을 개발하여 선비들만의 삶을 사유하기 위한 진화된 공간으로 파악된다.

(2) 사용자의 다목적성

정자는 사용자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건립되어, 다용도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간의 정해진 목적이나 기능이 없이 언제든 변용이 가능한 형태이다. 다용도성은 옷이나 생활도구의 쓰임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특성으로 전통문화의 '환원성'으로 설명하면서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거주공간이 좁아지고, 그 좁아진 거주공간의 최대 활용을 위한 지혜'31)로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한국인의 생활 속의 다치적(多值的) 사고를 파악할 수 있다.

30) 한국국학진흥원 안동하회마을, <http://hahoe.ugyo.net/>
 31)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3, 기린원, 1994, pp.122-128 재인용

<표 10> 다목적성을 통한 노마드적 정자 분석표

원지정 (遠志亭)	가내형(家內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처(병을 치료, 몸과 마음의 수양)의 역할 학문의 연구 큰 온돌방 : 기거와 강학의 목적 자연에 대한 순응과 조화 사상 : 유식의 공간과 수양의 기능 			
평면구성 특징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노마드적 특성	◎	◎	-	◎	◎
노마드적 특성	A	C	-	A	C
빈연정 (賓淵亭)	가내형(家內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처(병을 치료, 몸과 마음의 수양)의 역할 서재와 휴식을 통한 학문수양 			
평면구성 특징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노마드적 특성	◎	◎	◎	-	-
노마드적 특성	A, B	B, C	-	-	-
옥연정 (玉淵亭)	가내형(家內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문수양과 제자양성 「옥연서당기」中: 복잡한 숙세를 벗어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자양성과 강학의 공간 			
평면구성 특징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노마드적 특성	◎	◎	-	◎	-
노마드적 특성	B	A	-	C	-
경암정 (鏡巖亭)	가내형(家內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 입지조건 : 강경의 목적이 강함. 강학을 위한 공간 독립적 특성 : 별간채 			
평면구성 특징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노마드적 특성	◎	◎	-	◎	◎
노마드적 특성	A, C	A, B	-	B, C	C

정자의 공간은 다양한 기능이 수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노마드적 관점에서 보면 항상 열린 사유를 추구한다는 점이 상관성을 갖는다.


(3) 잠재적 실재32)와 전이


전이(轉移)는 표현되는 행동이 다른 대상에 직접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하회마을 속 사람들의 행위나 행동은 모두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통해 연계되는 체계 속에 전이된다. 이질적 요소의 급격한 변화는 상황의 전환을 조절하고 완충 또는 매개하는 기능의 공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이러한 생활정서의 요구를 전이공간이라고 한다.³³⁾

<표 11> 전이성을 통한 노마드적 정자 분석표

원지정 (遠志亭)	가내형(家內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면3칸, 측면 1칸 반의 맞배지붕 1칸 마루, 2칸 방 내부에 벽과 분합문을 통한 가변성 한쪽으로 치우친 마루배치로 인한 답답함을 문을 이용해 조망과 공기순환을 시킴 			
평면구성 특징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노마드적 특성	◎	◎	◎	-	◎
노마드적 특성	A, C	C	-	-	C
빈연정 (賓淵亭)	가내형(家內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면3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왓장 우측 2칸 정, 좌측 1칸 방 방은 전면 개방가능하며, 후면은 개폐가능하도록 설치 넓은 마루를 통한 전이성으로 방으로 오기 위한 개방성을 갖춘 탈공간화 삼면은 개폐가 가능하고 전면만 개방한 화천과 부용대 방향의 자연성을 높임 			
평면구성 특징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노마드적 특성	◎	◎	-	◎	◎
노마드적 특성	A, C	A, C	-	A	C

32) 실재(實在) :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재로서의 특성을 가진 것.

옥연정 (玉淵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가운데 2칸의 대청, 양측 각각 1칸의 방 전면에 뒷마루 설치와 대청전면에 사분합문을 설치하여 목적에 따라 자연 속 공간, 강학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전이성의 공간 										
	평면구성 특징	<table border="1"> <tr> <th>확장</th> <th>개방</th> <th>폐쇄</th> <th>분할</th> <th>완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노마드적 특성	A, C	C	-	B	-							


경암정 (謙巖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가운데 2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각각 1칸의 방 배치 후면을 제외한 3면에 뒷마루와 계자난간을 통해 경관을 조망하는 전이적 역할 										
	평면구성 특징	<table border="1"> <tr> <th>확장</th> <th>개방</th> <th>폐쇄</th> <th>분할</th> <th>완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노마드적 특성	A, B	B	-	C	A, B							


4개의 정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마루의 활용을 통해 정자로 향하는 전이공간이 새로운 공간들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노마드적 관점에서 볼 때 정자는 마루를 통한 공간의 확장과 완충의 기능이 반영된 실재의 공간이다. 특히 경암정(謙巖亭)의 경우 뒷마루와 계자난간을 통해 더욱 구체적 실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관계에 의한 자율성


선비들의 정신세계가 건축에 반영된 곳은 삶의 복잡한 내용을 수용해야하는 살림집보다는 선비들의 학문과 휴양을 목적으로 지은 정자나 별당, 서당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³⁴⁾ 따라서 정자의 조영물과의 주변 환경적 특징

<표 12> 자율성을 통한 노마드적 정자 분석표

원지정 (遠志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정은 옆에 연좌루와 관계, 배치되어 정사를 이룸 연좌루를 통해 휴식 정자내 기능의 분리와 부족한 유식공간을 보충 주거공간이 없는 독립된 공간 										
	평면구성 특징	<table border="1"> <tr> <th>확장</th> <th>개방</th> <th>폐쇄</th> <th>분할</th> <th>완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노마드적 특성	A	A, C	-	A	C							

빈연정 (賓淵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루공간은 넓고 주변의 관계된 것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휴식의 기능이 강함 개방된 곳으로 자연과 합일하는 자기 수양의 공간으로 보인다. 										
	평면구성 특징	<table border="1"> <tr> <th>확장</th> <th>개방</th> <th>폐쇄</th> <th>분할</th> <th>완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노마드적 특성	A, C	A, C	-	B, C	C							

옥연정 (玉淵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연정(사랑채), 별당채, 안채의 구성을 이룸 옥연정은 사랑채, 서당으로 제자양성의 공간으로 개방되며 독립된 공간의 배치를 취한다. 공간의 명칭은 사랑채라고도 불리지만, 기존의 주거공간과는 달리 다목적성을 가지는 정자라고 볼 수 있음 										
	평면구성 특징	<table border="1"> <tr> <th>확장</th> <th>개방</th> <th>폐쇄</th> <th>분할</th> <th>완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노마드적 특성	A, C	C	-	A	C							

경암정 (謙巖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채이자 정사인 경암정은 누형식으로 주변 공간들과 완전히 독립된 구조를 취한다. 심면에 뒷마루와 계자난간을 통해 기존의 공간과의 개별성과 특이성을 두어 자연과 합일한다. 										
	평면구성 특징	<table border="1"> <tr> <th>확장</th> <th>개방</th> <th>폐쇄</th> <th>분할</th> <th>완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노마드적 특성	A, B, C	A, B	-	C	A							


을 통해 노마드적 특성을 알아본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빈연정(賓淵亭)과 휴식을 위한 개별적 공간이 존재하는 원지정(遠志亭)과 달리, 별당채와 안채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옥연정(玉淵亭)과 바깥채로 구성된 경암정(謙巖亭)은 가내형정자이면서 강계연변형정자로 가내형정자보다 자연에 밀접하다. 주변에 안채, 사당 등의 공간들이 필요에 의해 관계하지만, 정자의 특성상 독립된 공간으로 개별성과 특이성을 가진 자유롭고 새로운 삶과 가치를 추구하는 노마드와 같이 주변과의 관계를 통한 자율적 공간으로 존재한다.


(5)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성


자연은 인간 주체와 대조되는 객체의 세계를 의미하며 인간과 인위의 산물을 제외한 대상 세계를 의미한다. 자연은 이러한 개체들의 총체를 지칭하며 관용상의 “자연”은 ‘우주’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³⁵⁾ 자연과 합일을 중요시 하는 정자는 이상향의 동경에 대한 무릉도원의 배경으로 신선이 거주하는 영역³⁶⁾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초월적 공간이다.

<표 13> 무한성을 통한 노마드적 정자 분석표

원지정 (遠志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좌루와 함께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 2개의 간(間)이 합쳐져 방의 기능을 더욱 충실하지만, 모든 공간이 개방된채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평면구성 특징	<table border="1"> <tr> <th>확장</th> <th>개방</th> <th>폐쇄</th> <th>분할</th> <th>완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노마드적 특성	A	C	-	B	-							

빈연정 (賓淵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정과 마찬가지로 2개의 간(間)이 합쳐졌지만 넓은 마루의 공간을 통해 공간의 활용도가 높은 잠재성을 가진다. 										
	평면구성 특징	<table border="1"> <tr> <th>확장</th> <th>개방</th> <th>폐쇄</th> <th>분할</th> <th>완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노마드적 특성	A	-	-	A	B							

옥연정 (玉淵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개의 간(間)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규모가 크며 두 공간의 개방 소통이 원활하여 다양한 기능과 목적이 수용 가능한 형태이다 										
	평면구성 특징	<table border="1"> <tr> <th>확장</th> <th>개방</th> <th>폐쇄</th> <th>분할</th> <th>완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노마드적 특성	A	C	-	B	B, C							

경암정 (謙巖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의 간(間)과 1개의 간(間)이 존재하여 방의 기능과 휴식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충족시키며 별당채로 존재하여 자연을 즐기는 무한한 공간이다. 										
	평면구성 특징	<table border="1"> <tr> <th>확장</th> <th>개방</th> <th>폐쇄</th> <th>분할</th> <th>완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확장	개방	폐쇄	분할	완충							
⊙	⊙	-	⊙	⊙								
노마드적 특성	A, B	A, B, C	-	A	C							

노마드적 관점에서 간(間)을 통해 확장과 연결(개/폐)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정자의 자유로운 배치와 가변

33) 정무웅, 생활정서와 공간의 전이성, 기문당, 2006, p.38

3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p.218

35) 한국사상연구회, 조선유학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1998, p.45

36) 박언곤 외 5인, 사물정기 고찰에 의한 정자건축의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권 2호, 1989, p.202

적 성격이 반영되어 정자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무한공간으로 해석된다. 주거공간의 용도가 정해진 공간들과 달리 자유로운 정자의 공간은 정자만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할 수 있는 평면을 가지고 있다.

5. 결론

전통 건축 중 정자는 노마디즘 관점을 통해 선비들의 삶과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특성을 가진 우주적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노마디즘 사유를 통해 현대적인 시각으로 전통 정자의 평면구성 특징을 논하고자 하였다. 노마드들의 새로운 삶의 추구하는 방식인 탈코드화, 탈영토화를 노마드적 관점에서 해석해 본 결과 '탈공간화'라는 공간적 해석을 하였고, 정자의 평면구성요소 중간(間)의 역할을 통해 확장과 개폐성을 통한 특성을 알아보았다. 새로운 것과의 결합을 통해 제3의 것을 창조하는 리즘의 '다양성'을 마루공간의 완충의 기능에서 연구해보았으며, 사건생성에 따른 '가변성'을 기둥에 의해 분할되는 공간들을 통해 특징들을 분석했다.

그리하여 노마드적 정자의 평면구성 특징을 4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무궁무진한 정자의 특징들을 검증하였다. 하회마을 내의 정사(精舍)에 위치한 정자들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성을 통한 진화'에서는 가내형(家內形)정자 이면서 강계연변형(江溪沿邊形)정자들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여 정자는 노마드처럼 새로운 자아를 찾아 강을 옆에 두고 독립적인 공간들을 추구하여 좀 더 진화된 삶을 살기 위한 학문의 장(場)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사용자의 다목적성'은 다양한 기능이 수용 가능한 열린 공간인 정자의 특징을 통해 정자 기능의 다양함을 파악하였다. 셋째, '잠재적 실재와 전이'는 정자의 평면구성을 통해 마루공간의 완충과 매개성으로 전이되는 정자에서의 경험적 특성을 리즘의 접속의 원리와 같이 새로운 공간의 생성적 측면에서 알아보았으며, 넷째, '관계에 의한 자율성'은 정자가 위치한 주변 공간과의 관계 파악을 통해 주변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양한 사건들이 잠재된 정자의 특징을 통해 정자만의 자율성을 가진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성'으로 우주와 합일(合一)되는 공간으로써, 정자는 선비들의 의지를 통해 발현된 미적인 동시에 자율적인 세계로 인간의 광대한 경지를 개척한 무한한 공간 속 형이상학적인 문세계이다. 정자는 특정한 가치와 삶에 얽매이지 않고 노마드가 새로운 자아를 찾아 유랑하듯 무한한 공간을 향한 노마디즘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의 전통 건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노마드적 관점에서 파악된 정자는 탈공간과, 가변성, 다양성을 통해 주거공간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이면서 자율적인 휴식, 풍류, 생활, 학문 등 다양한 기능이 수용 가능한 잠재적 특징이 내재된 평면구성을 가진다. 이러한 정자는 현대의 다원화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잠재된 멀티스페이스와 같은 활용가능한 공간이다. 노마디즘,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현실을 생산하고 변혁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환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해 주는 사유이다.

본 논문은 서양의 노마디즘과 한국 전통 건축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시도를 통해 더욱 깊고 넓게 정자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현대적인 관점에서 전통 건축물의 가치와 그 의의를 찾으려는 연구를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전통 건축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서양의 현대 철학으로 해석 가능한 전통 건축의 무한한 특징들을 통해 전통 건축의 우수함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현대적 공간의 활용을 위한 시도와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김개천, 명목의 건축, 안그라픽스, 2004
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3. 군돌라 엘리슈, 잡노마드 사회, 서울:문예출판사, 2002
4. 문화재청, 韓國의 전통가옥, 33:安東河回마을 1, 2009
5. 박언곤, 한국의 정자, 대원사, 1997
6. 정무용, 생활정서와 공간의 전이성, 기문당, 2006
7.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3, 기원원, 1994
8.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9. 이진경,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02
10. 임재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하회마을 민속의 문화적 가치, 한국국학진흥원, 2008
11. 홍익대학교 환경개발 연구원, 정자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단 연구소, 1993
12. 한국사상연구회, 조선유학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1998
13. Gilles Deleuze / Felix Guattari, Brain massumi(Trans), A Thousand Plateaus :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천개의 고원 : 자본주의와 분열증 2,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14. 김개천, 孟子의 性善과 天-合一-思想,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29호, 2010. 02
15. 문희춘, 병산서원의 만대루에 보여지는 시각체계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8
16. 신동관, 간(間)개념에 의한 亭子建築의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3
17. 이갑규, 조선시대 정자건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2
18. 김상협·최경란, 조선시대 수변정자건축의 자연추구기법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권 5호, 2010
19. 강정운·김진균, 정자건축 瀟灑亭의 공간적 특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6권 1호, 2006
20. 박언곤 외 5인, 사문정기 고찰에 의한 정자건축의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권 2호, 1989

[논문접수 : 2010. 10. 29]
 [1차 심사 : 2010. 11. 16]
 [2차 심사 : 2010. 11. 30]
 [게재확정 : 2010. 12. 10]